

# 미친 세상 엮어치기... '또라이 형사'의 통쾌한 복수

'물신의 세상'이 낳은 연쇄살인범 그 괴물을 지키는 권력의 노예들 그들을 무너뜨리는 또라이 형사 "에라이~속이 다 후련하다"

"내 생각으로는 나 자신이 악인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중략)그들에게 무슨 공경이속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로서는 전혀 짐작해낼 수가 없다. 심지어 그들은 화가 나서 안면을 바꿀 때면 오래 남들 보고 악인이라고 쓰아붙이는 판이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악인"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정작 그 장본인이 보기에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이 되려 "악인"일 뿐이다.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食人)"의 흉포한 자들이었다.

장본인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옛날부터도 종종 있어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비뿔비뿔하게 '인의 도덕'(仁義 道德)이란 몇 자만 써어 있었'던 "역사책"을 "밤새도록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제야 글자와 글자 사이에 온통 '식인(食人)'이란 두 글자가 뻑뻑이 박혀 있음"을 알았다.

오랜 세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역사책을 들여다본 것은 "만사는 연구를 해보아야만 명백해지는 법"이라 믿기 때문이었다. 그 끝에서 그는 세상과 사람들이 지닌 "식인"의 실체를 알아냈다.

하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식인의 피해에 대한 그의 의식을 피해망상쯤으로만 여겼다. 피해망상 가득한 미치광이의 시선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칠 리 없었으니, 장본인은 그저 일기로서 이를 기록할 뿐이었다.

### ● 온전치 못한 세상을 온전치 못한 시선으로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평가 받는 루쉰은 피해망상증에 시달린 외사촌동생을 모델 삼은 1918년 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를 통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악인"이자 미치광이로 내몰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작가 루쉰과, 혁명가이자 사상이 루쉰을 연구한 신영복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유세종 한신대 명예교수는 공저 '루쉰전-루쉰의 삶과 사상'에서 '광인일기'가 "사람을 잡아먹는 구 사회 제도를 반대한 '미친 사람'의 일관된 행위를 통하여 추악한 봉건사회를 한 폭의 생생한 그림으로 독자들 앞에 펼쳐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



영화 '공공의 적'의 주인공 강철중(설경구). 한국영화 사상 가장 강렬한 캐릭터로 평가 받고 있다. 미치가는 세상에 맞서 오로지 직관의 힘으로 경찰관의 사명감을 찾아가는 그에게 500만 관객의 지지가 쏟아졌다. 사진제공 | 시네마시비즈

그때 나타난 한 사내. "기계공고 다니다 컨닝 해서 팔등에서 두 번째 했던" 아시안 게임 복싱 은메달리스트 출신의 특채 경찰관, "강동경찰서 강력반 강철중" 형사다. 남들이 "두 계급 진급할 동안 두 계급 강등"된, 수사지침서에 적힌 갖은 수사기법을 숙지하기는커녕 압수한 마약을 되팔려는 비리 경찰관이다.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이렇게 얻어맞은 애들이 4월 중대 앉아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 입을 과시할 만큼 무지마하지 하기까지 하다.

그런 그가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범의 실체를 단박에 알아차렸을 때, 세상은 그를 온전치 못한 "또라이"라 낙인찍었다. 경찰관의 사명감을 지켜내기는커녕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그였으니 무리도 아니다.

연쇄살인범은 물신의 세상이 낳은 돌연변이였다. 이런 돌연변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또라이"의 시선을 지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대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여 대는 돌연변이의 미친 짓에 맞서려면 그만큼 무지마치함이 필요했다. 돌연변이를 때려눕히지 그 몸 위에 자신이 되팔려던 마약을 끼여들 통쾌한 복수의 한 판을 마감하고는 "양친 살해가 100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재미로 죽인 죄 100년, 민주경찰에 칼 들이던 죄 15년, 다량의 마약 소지죄 추가! 사형!"이라며 몇 대로 판결을 내릴 때, 세상은 비로소 이 '또라이' 형사의 그 무지마치함에 지지의 박수를 보냈다.

"한 발짝만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끔찍한 사태는 그 즉시 개선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로울 수 있지요. 비록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다손 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각박히 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는 광인의 말. "당신들은 개과천선할 수 있소. 그것도 진심에서부터 말이요. 장차 세상을 사람을 잡아먹는 자를 용납지 않을 것이며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명심하시오"라는 광인의 당부.

온전치 못한 세상을 온전치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세상을 드러내고자 했던 강철중이야말로 광인이 아닐까. 그렇게 시선을 비틀어 세상을 바라보려는 것, 영화로써 세상을 풍자한다는 것. 강철중이 바로 그 주역이었다. 전문기자 tadada@donga.com

### 영화 '공공의 적'은



무지마치함으로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강철중. 사진제공 | 시네마시비즈

### 세상을 풍자한 '또라이 형사' 강철중 한국영화 가장 강렬한 캐릭터 평가

'휴행 메이커' 강우석 감독의 2002년 작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강철중이라는 개성 강한 형사 캐릭터로 세상을 풍자했다.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던 시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장차 다가올 흉악한 세상을 경고했다. 설경구가 연기한 강철중은 이후 '공공의 적'과 '강철중:공공의 적1-1'로 이어지며 한국 시리즈 영화의 강렬하고도 대표적인 캐릭터가 됐다.

### 저출력 레이저 허리통증전문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허가번호 제14-842 **인체에 무자극/안전한 방법**

## 허리에는-허리愛

- 허리에는 1회 사용시간 40분, 자동세팅된다.**  
버튼을 누르면 1회 사용시간 40분이 자동 세팅되며 하루에 2번 사용을 권장하며 4시간 한변용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저출력 레이저는 안전하다.**  
허리에의 저출력 레이저는 허리통증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며 통증은 가라앉고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650nm 파장과 830nm 파장을 병사하며 10분이상 사용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전국 1000개 병원/크리닉에서 사용중.**  
소모품이 없어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허리통증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무선형이어서 비싼 병원 누르면 오케이... 허리에 사용하는 허리미 기쁜세상



**허리통증 환자 중 허리통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단 2% 수술을 걱정하기 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일시적인 통증 등은 적절한 물리치료나 스트레칭 등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리愛는 이런 분께 권합니다.**  
허리에는 반복적인 통증을 위해 고안된 제품입니다.  
허리에의 저출력 레이저는 인체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사용중에 통증이 유발되거나 영아나 상처를 입히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염진통제와 같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통증을 완화시켜 주어 만족스러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무료상담전화: 1644-2464**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센터아**  
서울시당지사: 02-522-2710 찾아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환승구 원당초교 뒤편  
서울시당지사: 02-522-2710 찾아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환승구 원당초교 뒤편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오늘 50대 한정 할인판매!**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금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 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량조절기능  
이러온 연결하면 양쪽 귀로 사용 가능 (기본제공)

**이런 때 사용하세요**

- 기차,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직장에서 상사의 무릎을 크게 듣고 싶을 때
- 상대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경사가 멀어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중고형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최신제품**

80  
길이: 5cm, 무게: 7g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잔량 확인기능 내장  
하위용량 방지 내장

**3000**

길이: 5cm  
무게: 7g  
충전제거 가능  
충전제거 가능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 /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분.

**서울시당지사: 02-522-2710**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무료상담 전화: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센터아**  
**구입문의: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센터아**

**SAFA**

대한민국 전문업체

비디오

라디오

음악

노래방

녹음

## 휴대용 동영상과 노래방을 내손 안에!

###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SAFA

- ▶ 충전식 휴대용 SAFA 7인치 화면 액정 장착
- ▶ 언제 어디서나 노래방 음원 재생 (마이크만 연결하면 그 곳이 바로 노래방)
- ▶ 언제 어디서나 HD급 비디오, 영화, 동영상 감상
- ▶ 라디오 기능으로 재나시에도 라디오 청취
- ▶ 녹음기능, USB 메모리 사용가능
- ▶ 등산, 낚시, 여행갈 때 **아이 필수품**

**2018년 신제품**

이미지, 낚시에서 박현민, 장준경까지 **1100곡 수록!**

노래방 음원 발매! **도전! 1100곡 7080 노래방 SD카드**

▶ 전국노래방 55곡 음원 **선착순 무료증정!** 주의의 많음 1,000명!

▶ 행사기간중 50분 한정 마이크, 충전기, USB 스틱 증정

**정품**

마이크로 SD카드    USB 메모리    DC 5V    스탠드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분

**선물용으로 최고!**    서울시당지사: 02-522-2710

무료상담 전화: 1644-2464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구입문의: 1644-2464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센터아